

생명의 말씀



김석송 목사
· 경기지방회장
· 순복음천성교회 담임

“또 이르시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보닛을 내게 주소서 하시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이 주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아와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밭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시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논평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라’ 시험 문제 출제, 파문 일다

지난 6월 12일 전국의 고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 과 탐구 영역 시험에서 ‘동성(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학생 사회과 탐구(생활과 윤리)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기’라는 의도로 출제된 8번 문제를 보면, 동성 결혼과 직접적이지 않은 문제를 찾아내라고 한다.

예시된 문제는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개인적인 선택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성적(性的)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성 결혼은 허용하면

서 동성 결혼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 정신에도 어긋나고 이 중에 ㉢의 동성 결혼 반대 입장으로, 이를 정답으로 찾는 것이다. 고2학년 사회과 탐구(생활과 윤리) 17번 문항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과 성 정체성이 다를 뿐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보기)에서, ㄱ. 성적 소수자도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ㄴ. 다수의 선택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ㄷ. 성 정체성에 따른 개인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ㄹ. 성 정체성은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중에 정답을 ㄱ, ㄴ, ㄷ으로 고르고 있다.



이혁주 목사

WCC 부산총회의 후유증에 대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회의의 입장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소속회원 41개단체)는 2013년 10월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11개월 동안 무려 11차례의 장의 시위집회를 개최하여, WCC의 거짓과 간계로부터 십자가의 도(道)와 한국에 있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적이며 동성애와 일부다처제 및 공산주의, 인본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등을 용인·조장한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WCC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나면 이 시대 세계선교의 대표주자이자 마지막 희망인 한국교회마저, 유럽교회들처럼 쇠퇴 일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회가 이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은 결코 WCC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누구보다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WCC가 1990년 발표한 ‘바야르 선언문’ 등 수많은 공식 문서들은 우리의 우려를 강하게 뒷받침했다. 1991년 호주 캔버라 WCC 제7차 총회에서 벌어진 정경현 교수의 ‘초혼제’ 및 북한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WCC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대응은 미온적이기 그지 없었다. 보수주의자들은 WCC 참여 인사들과의 친분관계가 깨지거나, 교계가 분열될 것을 우려해 대부분 침묵했고, 복음주의자들은 WCC를 선도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만했으며, 자유주의자들은 WCC에 대한 비판을 모두 사실무근이자 오해라고 매도했다. 본회의 WCC 반대운동은 실로 외로운 영적싸움이였다. 그러나 진리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투쟁이였다.

자유주의자들의 친WCC 성향이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복음주의자들의 침묵과 기만은 뼈아팠다.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보다 인간적인 요소들을 앞세웠으며, 복음주의자들은 WCC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노선을 보수·복음적으로 수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심지어 신학적으로 다르거나 문제가 있어도 마녀사냥을 일삼던 이단감별사들도 WCC추진 세력들의 규모에 겁을 먹었는지, 이단의 괴수와도 같은 WCC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복음주의자들의 적진분열로 인해, WCC와 자유주의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 한국교회를 마음껏 비웃고 유린했다. WCC 올라프 F. 트베이트 총무는 처음에는 한국교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부산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로부터 결론히 배우겠다.”고 하더니, 얼마 뒤에는 “한국교회는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교회의 경험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WCC 총회가 끝나고 반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양상을 보면 결과적으로 본회의 판단은 적중했음이 입증되고 있다. 먼저 WCC 총회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종교대화주의, 사회구원 지상주의, 용공주의, 로마가톨릭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가시적 교회일치주의, 성경불신주의 등을 변함없이 지향하고 표방하고 있다. 또 WCC 총회는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고 있으며, ‘선교-전도문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라고 종교 다원주의적 속성을 선언했다. 얼마 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가 천주교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했고, WCC와 NCKC는 북한 정부의 어용단체이자 위장 기독교 단체인 조그련과 6월 제네바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로 WCC의 좌경화·친북화·종교다원주의화 등은 선도되기는 커녕 반대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하는 말씀은 배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약 2:17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전국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관장을 것 같지만 절대 관장하지 않습니다. 돌아켜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화로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장성한 지의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거가까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3.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
둘째 이들은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 회개하고 돌아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라”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돌아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자”입니다. 돌아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시는 복을 맛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L, R은 성적 소수자의 차별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시험문제를 또 EBS 교육 방송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태도로 해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문제의 출제는 부산교육청이 주도한 것이지만, 교과서(비상교육)에 의해 문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 현장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13년 한국교회언론회 의뢰,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85%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함) 이런 사실을 학교와 교사에게서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동정

지도자협, 특별기도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6.25상기 64주년 남북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지난 달 20일 오전7시 여전도회관에서 갖고 6.25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말고 안보의식을 튼튼하게 고취시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민족이 될 것을 강조했다.

한남대학교 해외봉사활동



한남대학교(총장 김형태) 학생들이 지난 달 25일 ‘2014년 하계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몽골로 떠났다. 한남대 학생 26명과 학교관계자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2014년 한남대 하계 해외봉사단’은 6월25일~7월6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누가선교회 주대준 회장 취임



(사)누가선교회는 지난 달 28일(토) 오후 2시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누가선교회 창립 9주년 및 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누가선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와 2부 주대준 회장 취임식으로 진행됐다. 누가선교회 김성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최갑중 총장(백석대학교)이 설교했다.

교회갱신협 수련회



교갱협대표회장 이건영 목사) 제19차 영성수련회가 ‘내게 사는 그리스도나’란 주제로 오는 8월 18일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된다.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라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영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할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는 여전히 안이하고 왜곡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며, 복음주의자들은 ‘WCC 선도론’이 명백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WCC를 옹호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의 침묵과 복음주의자의 동조를 근거로 더욱 WCC에 대해 자화자찬 중이다.

따라서 본회는 소속회원 41개 단체의 이름으로 WCC 총회가 끝났다고 해서 성경적 보수 신앙을 수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순교자적 각오로 진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아래의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이미 밝혀진 WCC의 문제점들과 부산총회 이후 드러나고 있는 후유증들을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다.
둘째, 자칭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한다.
셋째, 세속에 물들고 권력과 세력에 말을 못하는 이단 감별사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판단을 하도록 촉구한다.
넷째, 한국교회를 성경적 보수 신앙의 믿음 아래 결집시켜, 분열을 해소하고 오직 예수의 진리를 수호할 것이다.

2014년 6월 5일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